



겨울바다의 맛 '감태'

무안군 어민들이 제철을 맞은 감태(甘苔)를 수확하고 있다. 매생이와 함께 '겨울철 남도의 별미'로 잘 알려진 감태는 청정 갯벌에서 자라는 해조류로 바닷물이 드러난 썰물 때를 맞춰 작업한다. (무안군 제공)

목포시의회 “무제한 노동 강요” vs 市 “수당 보완”

환경미화원 포괄임금제 논란

목포시가 환경미화원 노조와 임·단협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포괄 임금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정의당 소속 목포시의원들은 최근 “포괄 임금제는 근로시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근로기준법에 없다”며 포괄 임금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목포시는 “최상의 선택이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진보정의당 목포시의회 의원단은 최근 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 임금제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저하와 노동착취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목포시가 체결한 2013년도 환경

미화원 임·단체협약에 명시된 포괄 임금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괄임금제가 시행될 경우 목포시 환경미화원의 근무 10년차 월 평균 개인별 지급액은 지급과 동일하지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은 100여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현저하게 저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수당을 대폭 간소화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임금 체계로 개편했으며, 시간외나 휴일근무 등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뒤 보완했다”고 반박했다.

또 시는 “현재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모두 6건 20억원 가량의 임금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현행 임금체

계로 계속 운영될 경우 향후에도 매년 20억~30억의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임금은 삭감되지 않으면서 각종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 수당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포괄임금 제도를 도입해 환경미화원 대표노조와 내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협약체결로 그동안 기본급과 10개의 제 수당으로 나눠졌던 임금체계가 기본급+3개의 수당으로 무 등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뒤 보완했다”고 반박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아시아 최대 수중발굴 인양선 ‘누리안호’ 취항

아시아 최대의 수중발굴 전문 인양선이 목포에서 취항했다.

문화재청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는 김천 문화재청장, 정종득 목포시장, 김수현 시해경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누리안호’ 취항식을 가졌다.

누리안호(총수 290t)는 길이 36.4m·폭 9m 규모로 최대 14노트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다. 인양선은 2010년 4월부터 6개월간 설계하고 2010년 10월 착공해 최근 건조를 완료했다.

누리안호는 잠수장비와 유물의 인양·보관설비, 잠수사 감압챔버(잠수사 공기압을 조절하는 시설), 발굴현장 감시 설비인 열영상 관측시스템을 갖췄다. 조사원 20여 명이 20일간 체류하면서 발굴조사를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최대 8명의 수중 잠수조사가원인 시간으로 통신을 주고받으며 수중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다.

감압챔버를 장착해 돌발 사고에도 응급처치할 수 있게 됐다.

인양선은 진도 오류리 해역과 인천 웅진군 섬업벌 해역 등 전국 수중발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목포=김준식기자 kjs0533@

새해 다짐, 일출타워에서

완도군, 내년 1월1일 ‘해맞이축제’

“새해 소망을 ‘건강의 섬’ 완도에서 빌어보세요!”

완도군은 새해 1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다도해 일출공원 완도타워에서 ‘2013 해맞이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해맞이 행사에는 한해의 소망을 담은 소원지 달기를 시작으로 연날리기, 풍물패 길놀이, 국악인 오정해와 함께하는 희망의 노래, 새해에 만복이 가득하길 하늘에 고하는 대북 소리공연, 영상 메시지 및 신년 덕담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군은 이벤트 행사로 완도타워 전망대층에서 일출을 감상 할수 있는 입장권을 21일까지 공모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관광객 100명과 군민 50명 등 총 150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부부가 가

족은 1인이 4명까지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완도 새마을금고와 완도 여성단체협의회는 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들을 위해 떡국과 유자차를 제공한다.

앞서 31일에는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임진년을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인기가수 심수봉을 비롯한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송년 콘서트도 마련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새해 해맞이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대책, 숙박·음식점 친절서비스와 위생상태 점검 등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완도타워에서 바라본 일출

“영광원전 가동 중단하라”

함평군의회 안전대책 마련 촉구

함평군의회(의장 양규모)는 지난 14일 영광 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최근 문제가 발생한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함평이 영광원전 주변 40km 반경 안에 위치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다, 5·6호기 가동 중단과 납품비리 파문 등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양 의장과 군의원들은 영광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설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함평군과 군민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영광원전 가동중지 및 안전대책 등 촉구결의문’을 전달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영광원전을 둘러싼 일련의 사고들이 원전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면서 “잦은 사고에도 영광원전 측이 안전하다고 발표를 한 것에 신뢰를 할 수 없으며 영광원자력본부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공포감을 갖게 됐다”고 성토했다.

또 “가동을 즉각 중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에 가동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양규모 의장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이 시점에 함평군에서 인접한 영광원전에서 잦은 사고와 납품비리 소식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함평군민뿐만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로 한층 의혹이 없도록 하는것 뿐만 아니라 가동을 즉각 중지하고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해남 기관들 인재양성 ‘한마음’

농협·광주은행 등 장학금 1억7천만원 기탁

해남소재 각 기관들이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농협은행 해남군 지부를 비롯한 광주은행과 국민은행,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서 1억71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기탁된 장학금은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에 포함돼 해남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장학금 이외에도 지난 6월 쌀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복령면 천사

농장을 비롯해 산림조합, 전남도청 해남향우회, 목련클럽, 대흥사 상가 번영회 등에서도 장학사업 기금으로 써달라며 3000여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기탁된 장학금은 지역 교육발전과 장학사업에 값지게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1997년 장학사업 기금 관련조례를 만든 이후 현재 100여원을 장학기금을 조성해 장학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힘모아 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

완도 범군민 자원봉사 출범

완도군 기관·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해조류박람회 범군민 자원협의회’가 지난 13일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박람회 성공을 다짐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중식 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장(군수)과 박삼재 범군민 자원협의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앞으로 범군민 자원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시로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군민 실천과제를 설정해 박람회 지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중식 조직위원장은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 군민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범군민 자원협의회 사무실을 박람회 지원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공간으로 꾸꾸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Canon

수지의 착한 선물 페스티벌

행사기간 2012년 11월 19일 ~ 2013년 01월 10일

행사제품 구매 후 정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를 마친 고객 전원에게 특별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라푸마 구스다운 정품 배터리

EOS 60D EOS 650D

어댑터 EF-EOS M 스피드라이트 90EX 정품 배터리

EOS M

정품 배터리 CGV 영화관람권 (5매) 록시땅 핸드크림 (150ml)

PowerShot G1X·G1S·S110 SX50 HS·SX500 IS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